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투기 특별조사단 합동 단속
거래 942건 모니터링·검증
불법 적발되면 무관용 처리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2월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 등을 전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총 942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서,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국세청과 함께 조사 중이다.

또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보호받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천 둔치 보라색 꽃 잔치 정읍시민의 휴식처인 정읍천 둔치에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꽃잔디'가 만개, 눈부신 보라색 빛을 발산하고 있다. 멀리서 보면 잔디 같지만, 긴 줄기가 땅속에서 뻗으며 보라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잔디로 불린다. 꽃은 주로 4월에 피며 패랭이꽃 모습으로 지면에 퍼지기 때문에 '지면패랭이꽃'이라고도 한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상가밀집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중앙로 등 22곳에 설치

정읍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동 중앙로와 새암길 상점가 일대에 '보이는 소화기'〈사진〉를 설치했다.

시는 총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중앙로와 새암길 상점가 일대에 '보이는 소화기함' 20개소(소화기 40개)와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2개소를 설치해 유사시 소화기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화 기구는 각 상점가 상인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점과 가깝고 눈에 잘 띄면서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해 설치했다.

특히 호스릴 소화장치는 기존 상수도 소화전과 연결된 호스(최대길이 50m)를 통해 시민 누구나 초기진화를 시도할 수 있어 화재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규 정읍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주택·상가 밀집 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 지역 상인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 장류체험관, 거리두기 해제 다시 '인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순창군의 대표 체험공간인 장류체험관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은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 위치한 장류체험관에서 장류요리체험과 고추장만들기, 인절미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관광객들의 체험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류체험관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체험관 숙박이 가능해 순창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관광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호응이 크다.

체험관 내 19실의 숙박시설과 주변에 강천산, 토굴, VR체험관, 푸드사이언스관 등 볼거리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근에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까지 개장해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올해도 장류체험관은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순창 장류체험관 전경.

전국의 학교와 여행사에 장류체험 홍보물을 발송하는 한편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도 추진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도연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탄소중립, 남원이 그린(Green)다'…정책제안 타운홀미팅

27일 남원켄싱턴리조트
시민 아이디어·실천방안 논의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단장 임영란)이 오는 27일 '탄소중립, 남원이 그린(Green)다'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과 정책제안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남원켄싱턴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방안 및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정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도출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실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시도로, 참가한 시민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시민공감, 남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에 남원의 시민들이 먼저 실천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타운홀미팅은 탄소중립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등의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하고싶은 남원시민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남원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블러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민들이 모여 정책과 행동을 얘기하고 전문가가 함께 하는 탄소중립 타운홀미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원, 사는 사람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정책을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높을고창몰' 오픈 1주년 풍성한 이벤트

4월21일생 '고창' 이름 100만원

고창군의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이 오픈 1주년 특별이벤트로 '현상수배 고창이를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고창군은 높을고창몰의 공식 오픈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색다른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웃음과 희망을 드리고자 특별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창이를 찾습니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태어난 날이 4월21일이고 이름이 고창인 사람으로 본인과 제보한 사람에게 고창사랑카드 100만원권을 각각 제공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 품목 30% 무제한 할인 쿠폰 발급 ▲N번째 고객에게 최대 500만 포인트 지급 ▲4월21일 당일 3만원이상 고객에게 1만포인트 지급 ▲소원을 들어주는 노블이 등 다양하고 색다른 이벤트가 이어진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시장의 확대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을 운영해 왔다.

고창의 대표농수산물인 수박, 멜론, 고구마, 땅콩, 풍천장어, 바지락, 지주식 김 등 139개 업체 500여품목이 입점 또는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높을고창몰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고객관리, 지속적인 홍보 확대 및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